108호 2026 11월 15일
발행인:김화룡/ 편집인:김태식 / 편집:박시은 / 편집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5010-4614/15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21 1122 8827
Add: Korea Center Gedung 2 Lt. 1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Kel. Kuningan Timur
Kec. Setiabudi, Jakarta Selatan Kode Pos 12950

KOGA 소식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108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37회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연말행사 열려

지난 10일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회장:김화룡)는 제37회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연말행사를 인도네시아 까라왕 로투스CC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윤순구대사를 비롯해 재인도네시아 신기엽 명예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 송창근 명예회장, 민주평통 이정휴 동남아지회장, 곽국민 파크랜드 부회장, 장윤하 KOSA회장과 봉제협회의 많은 회장단, 회원사가 참여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회장 김화룡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윤순구


▲KOCHAM 송창근 명예회장


▲KOGA 배도운 명예회장

김화룡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몇 년간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경기와 더불어 우리 봉제기업이 힘들었고 특히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했으며 지난 37년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온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다.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는 이날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와 닿은 기운이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고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의회의 봉제산업이 한인 동포사회의 맏형같은 이미지로 당면한 어려움을 봉제인들이 힘을 모아 이겨내자고 했다.

송창근 재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한인 동포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라고 하면서 봉제인들의 노고에 큰 격려를 했다.

한편 두산 배도운 코가 명예회장은 봉제산업이 힘든일이 있더라도 좋은 시절이 꼭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기업은 대략 1985년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을 했으며 햇수로는 대략 50년을 훌쩍 넘겼다.

또한 인도네시아 봉제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봉제기업은 한인 동포사회의 지주역할을 해오고 있고 약 100만명의 고용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의 한 축을 튼튼히 해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7회 한국봉제협회 연말행사는 다가오는 2027년 우리 봉제협회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본다. [편집국]

“10년의 나눔, 새로운 동행” … JIKS 발전위원회 간담회 개최

‘꿈키움 장학사업’ 10년간 약 90억 루피아 · 135명 지원

더 많은 한인사회 구성원의 발전위원회 참여로 학생들의 배움 기회 확대 기대

자카르타한국학교(교장 이문성)는 지난 10월 9일 발전위원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년의 나눔, 새로운 동행’을 주제로 「2026학년도 JIKS 발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 시작된 꿈키움 장학사업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학생 지원 방향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꿈키움 장학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뜻을 함께한 이들의 참여로 시작되었다. 2026년 9월 기준 누적 지원액은 90억 4,328만1,000루피아, 누적 지원 학생 수는 135명(중복 포함)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15명에게 8억4,446만6,000루피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나눔은 2021년 발전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원을 받은 졸업생들의 진학 · 진로 현황과 2026학년도 장학생들의 대학 합격 성과를 공유하고, 졸업생 메시지와 졸업생 · 재학생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장학 지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장학사업의 발자취와 후원의 뜻을 기록하는 기념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규 위원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발전위원회 배도운 회장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꿈키움 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켜주는 의미 있는 나눔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발전위원회와 함께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국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꿈키움 장학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나눔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IKS=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새 노동보호법 통과…진출 한국 제조기업 비상

인도네시아 하원, 2026년 10월 6일 313개 조항의 노동보호법 전격 의결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및 퇴직금 사전 적립 의무화로 고용 비용 급증
봉제 · 신발 · 섬유 등 현지 진출 한국 노동집약 제조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인도네시아 하원이 2026년 10월 6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총 3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노동보호법을 의결했다고 블룸버그가 2026년 10월 7일 보도했다.

이번 입법은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일자리창출법에 포함된 노동 조항을 2년 내에 별도 법률로 분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지 노동조합들은 수주간 평화 시위를 벌이며 노동계 요구 사항의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이 2026년 10월 6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총 3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노동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노동보호법 본회의 통과 배경

인도네시아 하원의 이번 입법은 수년간 이어진 일자리창출법 체제의 노동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단행됐다. 현지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일자리창출법 내 노동 조항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원은 시한에 맞춰 단독 법안을 처리했으며, 심의 기간 동안 노동계의 거센 요구와 평화 시위가 이어졌다.

강화된 해고 요건과 퇴직금 적립

블룸버그는 야시엘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의 의회 발언을 인용해 새 법이 일부 상황에서 퇴직금을 통상액의 절반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시 지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다만 블룸버그가 보도한 시점 기준으로 법률 전문과 시행 세칙은 공식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제조기업 비용 구조 영향

인도네시아 하원이 313개 조항의 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봉제, 신발, 섬유 등 현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한국 노동집약 제조기업들은 비용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새 법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금 충당금의 사전 적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주와 기간제 계약 활용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지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과 협력사들은 고용 유연성이 크게 축소되고 퇴직금 사전 적립 의무에 따른 고용 비용 증가와 법적 분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

인도네시아 사용자협회와 현지 진출 기업들은 법률 전문과 시행령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최종 비용 영향은 세부 규정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향후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령이 공개되기 전까지 현지 진출 기업들은 기존 해고 계획과 임금 구조를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강화된 노동 규제가 정착될 경우 현지 생산기지의 인건비 부담이 고착화되어 수익성 구조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향후 공개될 시행령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특정 노동집약 업종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유예 기간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이러한 영향 경로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법무법인 광장, 인도네시아 데스크 개소…
국내 기업 법률 지원 확대

법무법인 광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 데스크를 개설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광장은 지난 23일 자카르타에 있는 현지 로펌 AKHH 사무실에 인도네시아 데스크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데스크에는 현지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임범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책임변호사로 상주한다. 그는 국내 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M&A), 합작투자,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데스크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자원, 제조업 기반을 갖춘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다. 광장은 에너지 · 인프라와 통신 분야 기업자문 및 분쟁해결에 강점이 있는 AKHH와 협력해 현지 법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문호준 광장 대표변호사와 우동석 · 박지혜 · 임범상 · 김정화 변호사, 구상원 외국변호사 및 AKHH 파트너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광장 서울 본사와 인도네시아 데스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지 사정에 밀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제2차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위원회 개최

이행 현황 점검 · 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28일 제2차 한—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박근오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네시아측은 조니 마르타(Johni Martha) 무역부 국제통상협상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지난 2023년 발효돼 시행 4년차이다. 공동위는 2023년 12월 처음 개최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올해 4월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을 통해 CEPA의 효과적인 이행과 기업들의 협정 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위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전 공동위 개최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인도네시아산 가금육 제품, 한국산 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산업부

제품 등의 수입 허용 검토 현황과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 점검 등 CEP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협정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GOLF CLUB
Swing Your Sense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꼬,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인니 섬유 · 신발업체, 설비 교체 지원 신청 조건은

섬유 설비 구입비 최대 5억 루피아 환급…정책대출은 연 5%포인트 이자 보조

무함마드 사르무지 산업장관이 섬유 · 의류와 가죽 · 신발산업을 우선 육성 분야로 제시하고 노후 생산설비 개선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장관은 평균 사용 기간이 20년을 넘는 섬유산업 설비의 현대화를 위해 기존 설비 교체 지원사업과 노동집약산업 대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안타라통신이 기존 제도의 지원 방식과 신청 조건을 정리한 안내 기사에 따르면,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섬유업체가 기계를 구입한 뒤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 사업과, 섬유 ·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기업이 은행에서 설비 구입자금을 빌릴 때 정부가 이자를 보조하는 정책대출이다.

섬유업체는 구입비의 10~25% 환급

섬유산업 설비 지원은 기업이 먼저 기계를 구입 · 설치하고, 심사를 거쳐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산업부 장관령 2024년 제20호에 따르면 국산화율(TKDN) 25% 이상 인증을 받은 인도네시아산 기계는 인정 구입액의 25%를 지원한다. 수입 기계나 해당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산 기계는 10%이다. 중고 · 재생 기계는 제외된다.

8월 27일 개정된 2026년도 시행 지침은 기업당 환급 한도를 5억 루피아로 정했다. 신청기한은 11월 15일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기계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5일 사이에 구입하고 설치해야 한다. 설치 장소는 산업허가에 기재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구입 · 대금 지급 ·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상 업종에는 방적 · 직조 · 염색가공 · 편직 · 부직포 · 의류 제조 등이 포함된다. 신발 제조는 이 환급사업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투자액 · 허가 보유기간 등 자격 요건 확인해야

환급사업의 주요 신청 조건은 토지 ·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100억 루피아를 초과하고, 해당 업종의 산업허가를 4년 이상 보유한 법인이다. 지원을 신청하는 기계의 총 구입액은 최소 5억 루피아다.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을 통한 산업정보 보고와 산업 4.0 준비도 자체평가, 폐수처리 관련 요건 등도 적용된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계 현지 법인도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규정은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식 신청서에는 외국인투자기업(PMA)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다. 규정과 서식상 외국인투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는 업종 코드와 투자액, 허가, 설비 요건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발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설비 구입용 대출

섬유 · 의류와 가죽 · 신발업체는 노동집약산업 대출(KIPK)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식음료 · 가구 · 완구산업도 대상이다.

만디리은행 안내에 따르면 대출한도는 5억 루피아 초과부터 100억 루피아까지이며, 설비투자 대출기간은 최대 8년이다. 신규 기계 구입비의 최대 75%를 대출하므로 기업은 최소 25%를 자체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주요 조건은 해당 산업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 12개월간 연속으로 최소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다. 사업자 등록과 납세, 근로자 사회보장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정부 정책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며, 은행의 신용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 집행 실적도 있다. 산업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26개 차주에게 총 910억 루피아가 공급됐다.

금리를 연 5%로 고정하는 상품은 아니다

만디리은행이 안내하는 정부 이자 지원은 연 5%포인트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 지원분을 뺀 금리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정한 금리가 연 11%라면 정부가 5%포인트를 보조하고 기업은 연 6%를 부담한다. 은행금리가 연 12%라면 기업 부담은 연 7%가 된다. 이 수치는 지원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아니다.

따라서 '5% 이자 지원'이라는 설명을 '기업이 연 5% 금리로 빌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때는 은행 금리와 정부 지원분, 기업이 실제 부담할 금리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고정되는지, 일정 시점에 바뀌는지도 대출약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계 기업의 대출 자격은 은행에 별도 확인

만디리은행은 이 대출을 중소 규모 산업체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이용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섬유 설비 환급사업의 외투법인 관련 규정을 정책대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계 기업은 법인 형태와 기업 규모가 취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계 기업의 실제 지원 사례와 환급사업의 잔여 예산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앞두고 외환시장 관망세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화도 약세 압력을 받았다고 2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 이상 하락해 배럴당 115달러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카타르 중재단이 미국과 협력하여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5일 테헤란을 방문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 국채 시장은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얻은 상승분을 대체로 유지했다. 높은 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데다, 인공지능(AI) 관련 우려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974%, 30년물 국채 금리는 5.299%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근처에 머물렀다.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National Australia Bank)의 외환 전략 책임자인 레이 애트릴(Ray Attrill)은 "당분간 미국 채권 시장이 전반적인 달러화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 미국 및 기타 G10 주요국 간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미 달러화에 가해지던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달러지폐 (사진=안따라포토/Wahyu Putro)

이번 주 후반에는 5개 주요 중앙은행의 행보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장은 캐나다 중앙은행과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신뢰 지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추가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며, 현물 금은 온스당 3,986.16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0.6% 하락한 79,925.84달러를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1.1% 내린 2,317.33달러를 나타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노동계, 2027년도 주 최저임금 '7.5%~9.5% 인상' 촉구… 전국 38개 주 연쇄 시위 예고

KSPI "임금 인상이 기업 파산 부르지 않아… 폐업 원인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운영비 부담"
정부 임금 결정 시한 앞두고 지방정부 압박… 퇴직금 기준 현실화 및 외주 규제 개선도 병행 요구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대표 Said Iqbal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 규모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쇄 시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은 오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38개 주 전역에서 2027년도 주 최저임금(UMP) 7.5%~9.5% 인상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정한 차기 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각지의 주지사 집무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월 1일 고시 시한 앞두고 38개 주지사 집무실 포위… "결정권 있는 지방정부 압박"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KSPI 총재 겸 노동당 대표는 2026년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계획을 공식화했다.

사이드 대표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38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자카르타 중앙정부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쥔 각 지역 주지사를 직접 겨냥한다. 자카르타 역시 주지사 집무실 앞에서 집중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 최저임금(UMP)과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은 법적 효력 발생일(2027년 1월 1일)의 60일 전인 2026년 11월 1일까지 최종 확정·고시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지방정부 및 임금위원회가 상한선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인 10월 하반기를 정책 개입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지표 상한선 적용… "하한 7.5%·상한 9.5% 산출"

대통령 노동·복지 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사이드 대표는 이번 요구안(7.5%~9.5%)이 객관적인 거시경제 지표와 법정 산식을 면밀히 검토해 도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상안 산정에는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율,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그리고 현행 정부령(PP 2026년 제49호)에 규정된 특정 지표(알파, α)가 반영됐다.

KSPI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20%, 경제성장률은 5.43%로 집계됐다(미발표된 9월 통계청 수치 제외). 여기에 법정 알파 지표 범위(0.5~0.9) 중 최고치인 0.9를 대입하면 전국 평균 인상률은 약 7.7%로 도출된다.

사이드 대표는 "전국 평균 산출치는 7.7%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하한선을 7.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상한선 9.5%는 지역 간 심각한 경제 편차를 고려한 조율의 결과다. 일례로 니켈 등 광업 붐으로 경제성장률 20.05%, 인플레이션율 5.8%를 기록한 북말루쿠주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지표(알파 0.5)를 적용해도 인상률이 12.5%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사이드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된 전례가 없다는 점과 산업계의 수용 능력을 두루 고려해 상한선을 9.5%로 현실화했다"며 노동계의 요구가 비이성적인 과잉 주장이 아님을 역설했다.

재계 파산 우려 일축… "폐업은 저임금 지역 집중, 본질은 수출 침체와 간접비용"

노동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금 인상 발(發)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이드 대표는 통계를 제시하며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공장 폐업이 가장 빈번했던 곳은 자바 아(중부 자바), 마잘렝카, 수메당 등 역설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산업 침체의 근본 원인이 임금이 아닌 글로벌 거시환경 악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주로 타격을 입은 섬유·의류·신발 제조업체들은 대표적인 수출 지향형 기업들로, 주요 수출 대상국의 소비 침체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대외 주문이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산업용 가스 및 유류(BBM) 가격 급등, 고물류비 등 원자재와 운영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고비용이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급증한 생산 간접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 축소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 대표는 "모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의 임금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정부와 경영계는 기본공제(PTKP) 소득세 개편, 부가가치세(PPN) 환급, 통관·물류비 인하, 납기 준수 시스템 정비 등 간접비용(Overhead Cost)을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근본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법제 개정 요구도 병행… 퇴직금 정상화 및 외주 근로 규제 강화 촉구

한편, 이번 연쇄 시위에서 KSPI와 노동당은 최저임금 쟁취 외에도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현행 정부령(PP 2021년 제35호)의 전면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법정 기준의 0.5배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퇴직금 규정을 문제 삼으며, 최소 법정 기준 1배 이상의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령(2026년 제6호)의 아웃소싱(외주·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새 법령 제정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사이드 대표는 "파견·외주 직종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해 명확한 원·하청 고용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신분 보장, 단결권, 퇴직금 수급권 등 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즉각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1일 고시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노동계의 38개 주 총력 투쟁으로 인해, 임금 인상 폭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노·사·정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포스트]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탈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인니 제조업 지표 상승…2016년 9월 소비자신뢰는 소폭 하락

BI 경제지표로 본 생산 · 소비 · 대외금융…2026년 9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인도네시아의 2026년 3분기 제조업 경기지표가 2026년 2분기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활동지표는 2026년 2분기보다 낮아졌고, 2026년 9월 소비자신뢰지수도 2026년 8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이 10월 7~19일 발표한 경제자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의 개선과 가계가 느끼는 경기, 실제 소비의 움직임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3분기 제조업은 개선…전체 기업활동은 증가세 약화

BI가 19일 발표한 3분기 제조업경기지수(PMI-BI)는 52.28로, 2분기 51.43보다 높아졌다. 생산량 · 주문량 · 재고량 관련 지수가 상승했으며, 식음료와 기초금속, 섬유 · 의류 등 여러 업종이 확장 구간에 머물렀다.

이 지수에서 50은 확장과 위축을 나누는 기준선이다. 50을 웃돌면 제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52.28이라는 수치는 제조업 생산이 52.28% 증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조업보다 넓은 산업을 조사한 기업활동지표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2026년 3분기 기업활동의 가중순응답지표는 11.46%로, 2026년 2분기 12.97%보다 낮아졌다. 설비가동률도 2026년 2분기 73.80%에서 2026년 3분기 73.75%로 소폭 하락했다.

가중순응답지표는 기업들에게 사업활동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묻고, 두 응답의 차이에 업종별 비중을 반영한



수치다. 양수라는 것은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증가 응답이 감소 응답을 웃돈다는 뜻이다. 매출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과는 구분해야 한다.

두 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 2026년 3분기 제조업 지표는 개선됐지만, 산업 전반의 기업활동지표는 2026년 2분기보다 약해졌다고 읽을 수 있다.

응답 기업들은 4분기 제조업 경기지수를 52.37, 기업활동지표를 10.77%로 예상했다. 두 수치 모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전망치다.

2026년 9월 소매판매, 2025년 9월보다 늘고 2026년 8월보다 줄어들 전망

BI가 2026년 10월 9일 발표한 소매판매조사에서 2026년 9월 실질판매지수는 221.3으로 예상됐다. 판매 규모는



2025년 9월보다 1.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6년 8월과 비교하면 2026년 9월 판매는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BI는 식음료 · 담배 판매 감소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판매가 늘면서 동시에 줄어든다는 설명은 비교 대상이 달라서 나온다. 2025년 9월과 비교하면 판매 규모가 조금 크지만, 2026년 8월과 비교하면 작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 보도자료의 2026년 9월 수치는 판매업체들이 예상한 전망치다. 조사 결과로 제시된 2026년 8월 판매는 2025년 8월보다 1.3%, 2026년 7월보다 0.8% 증가했다. 따라서 '2026년 9월 소매판매 증가 전망'을 이미 확인된 판매 실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2026년 9월 소비자조사, 현재 경기 평가 하락 · 향후 기대 상승

BI가 지난 8일 발표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026년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8.1로, 2026년 8월 118.5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 지수는 100을 웃돌면 낙관 구간으로 분류한다. 2026년 9월 소비자신뢰는 2026년 8월보다 소폭 약해졌지만 낙관 구간은 유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재 경

제상황지수는 2026년 8월 109.4에서 2026년 9월 107.5로 하락했다. 반면 향후 경제기대지수는 2026년 8월 127.6에서 2026년 9월 128.7로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2026년 9월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면서 2026년 8월보다 덜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았지만,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는 높였다는 뜻이다. 소비자신뢰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 형편이나 소비지출까지 모두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2026년 8월 대외채무, 2025년 8월보다 5.6% 증가

BI가 15일 발표한 2026년 8월 대외채무는 4,593억 달러로, 2025년 8월보다 5.6% 증가했다.

대외채무에는 정부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해외채무도 포함된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비율은 2026년 8월 기준 30.9%였다. 이는 정부의 빚만 따로 계산한 비율이 아니다.

2026년 8월 정부 대외채무는 2,209억 달러로, 2025년 8월보다 3.3% 증가했다. 반면 2026년 8월 민간 대외채무는 1,956억 달러로, 2025년 8월보다 0.8% 감소했다.

중앙은행 부문에서는 비거주자의 BI 루피아증권(SRBI) 보유 확대가 채무 증가에 영향을 줬다. 전체 대외채무가 늘었다고 해서 민간기업의 해외 차입까지 함께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BI는 장기채무 중심의 구성을 근거로 대외채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채무 총액의 증감과 언제 갚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환구조를 함께 살핀 판단이다.

2026년 9월 말 외환보유액, 2026년 8월 말보다 2억 달러 감소

2026년 9월 말 외환보유액은 1,463억 달러로, 8월 말 1,465억 달러보다 2억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대외지급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이 보유한 외화자산 등이다. BI는 2026년 9월 말 보유액이 수입대금 5.3개월분, 수입과 정부 대외채무 상환을 함께 고려하면 5.2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액에는 돈이 들어오는 요인과 나가는 요인이 함께 반영된다. 2026년 9월에는 정부의 해외차입금 인출과 세금 · 서비스 수입 등이 유입 요인으로, 정부 대외채무 상환과 루피아 안정화 정책 등이 유출 요인으로 작용했다.

BI는 2026년 9월 말 외환보유액이 국제적 적정성 기준으로 제시한 수입대금 약 3개월분을 웃돌고 있으며, 대외충격 대응과 금융안정을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 · 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PT. INDOKON MULTI SARANA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동남포 의류 생산기지 '비용 압박' 캄보디아 2027년 최저임금 협상… 노동계 최대 40.6달러 인상 요구 베트남, 美 12.5% 관세 부담… 생산성 · 고부가 제품으로 대응



동남아시아 주요 섬유 · 의류 생산기지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저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와 가격 · 납기 경쟁에 직면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캄보디아 봉제 · 섬유 · 신발 · 여행용품 업종의 현행 월 최저임금은 210달러다. 2027년 임금을 놓고 노동계 다수는 15.30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는 40.60달러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현 수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근로자 생계비와 물가뿐 아니라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부터는 유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50달러의 교통비 지원도 추가했다.

캄보디아가 임금 인상 문제에 직면했다면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7월 강제노동 관련 조치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12.5% 관세를 적용했으며, 이는 10%를 적용받는 일부 경쟁국보다 2.5%포인트 높다.

여기에 가격 경쟁과 원부자재 · 물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베트남 업계는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섬유 · 의류 수출은 약 31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지만 업계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수출 증가에도 업체별 수주 상황은 엇갈리고 있다. 비나텍스산하 일부 대형 업체는 4분기까지 생산물량을 확보한 반면 일부 봉제업체는 11~12월 생산능력을 채우지 못하는 등 연말 주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임금과 관세, 비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면서 동남아 섬유 · 의류 생산기지의 경쟁전략도 물량 확대에서 생산성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업계는 자동화와 공정 효율화, 비용 절감, 고부가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생산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최고의 복지가 최고의 성과를 만듭니다. !! 인도네시아 기숙사 · 현장을 위한 다목적 힐링 솔루션. Vgolf 스크린 과 함께 만듭니다



인도네시아 스크린골프 시장 1위인 Vgolf는 2004년 한국 최초 실내연습장 · 스크린골프 체인(서울 왕십리 임페리얼)을 모체로 출범하였다.

Vgolf 인도네시아(대표:이정기) 시장의 진출은 2009년 하였고 인도네시아 진출 이후 16년간 전역에 200여 대를 설치하며 인도네시아 스크린골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스크린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Vgolf 이정기 사장은 "스크린골프는 사실 매우 단순한 기계입니다. 골프의 핵심인 '방향성' 과 '비거리' 를 고속 카메라 센서로 계측하고 분석하여, 그래픽으로 표현해 내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크린골프를 필드가 아닌 실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편의성과 유용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존 한국 스크린골프의 문제점은 설치비에 많은 거품이 있고 위와 같이 원리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국 제품들은 설치비만 6,000만원~1억원에 달하는 부담되는 가격은 물론 설치 후에도 기기당 월 25만 원의 과금과 1~2년 주기의 강제적인 업그레이드 비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Vgolf만의 압도적 경쟁력은 설치 비용의 거품 제거하고 월 과금 없는 무제한 사용 및 업그레이드 비용 전면 무료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 활용성으로 골프뿐만 아니라 노래방, 영화관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용도 엔터테인먼트룸' 을 세팅해 고객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실제 Vgolf는 1대 설치비용으로 450 Juta이고 현재 시장 반응은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 덕분에 오지의 발전소, 탄광, 공장 기숙사는 물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일반 가정집에도 설치가 급증하며 스크린골프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상담자 : 이 정기 팀장
핸펀 : 0815-7456-8000
카톡 : golf03651

HANSHIN
에어 콤프렛서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노동보호법: 정규 부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혜택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10월 27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연구소 애널리스트 Nikita Grace Panggabean의 의견입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흔히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가장 마지막에야 받게 된다. 기업의 자산은 우선 담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고,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몇 년이 지나서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보호법(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법은 '일자리 창출법'에서 노동 관련 규정을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지난 10월 6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노동자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퇴직금 적립 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법은 채용 및 배치부터 직업 훈련, 임금, 작업장 안전,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전체 직장 생활을 포괄한다.

기간제 계약은 최대 4년(기본 2년에 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되며, 아웃소싱(외부 위탁)은 지원 서비스 분야로만 한정된다. 인턴십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당 지급과 사회보장 보험 가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국가 임금 위원회와 함께 실시하는 생계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퇴직금 적립 기금은 기존의 실직보험(JKP)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정규 부문 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실질적인 진전이다. 그동안 이들이 겪어온 고질



▲2026년 9월 24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 보호법 제정, 아웃소싱 및 무급 인턴십 폐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적인 문제들, 즉 퇴직금 수령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거나, 수년간 단기 계약직 상태로 머물러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록된 해고 건수는 10만 5,658건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했다. 기업이 파산하면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새 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해결한다.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정규 부문 노동자들은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수단이기도 한 인턴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더 넓은 노동 시장의 일부일 뿐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노동인구 1억 5,540만 명 중 720만 명(4.65%)이 실업 상태였다. 특정 집단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7.4%로 전국 평균의 거의 4배에 달하며, 교육 수준별로는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다. 이 구직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취업자 1억 4,820만 명 중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비율은 40.7%다. 나머지 59.3%(약 8,800만 명)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임시 또는 무급 인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주, 일용직 노동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제, 근로계약, 퇴직금과 같은 보호 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에서 창출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2026년 2월부터 5월 사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에서 19만 5천 명, 운송 및 창고업에서 12만 1천 명, 기타 서비스업에서 11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12만 8천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러한 분야는 소규모 사업체나 자영업, 그리고 최근 증가 추세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흔한 곳들로, 공식적인 고용 보호 장치가 가장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생계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고를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어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 급여, 재교육, 구직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새 법은 첫 번째 방식에서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고용주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마련될 시행 규칙이 이러한 균형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노동부가 언급한, 법 시행 전 1년간의 전환 기간은 바로 시작을 위한 시기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퇴직금 적립 기금은 실직보험(JKP)과 연계된 공동 보험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이때 기여금은 투명하고 보험수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리 주체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잘 구축된다면, 퇴직금은 예기치 못한 일시금에서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전환될 것이며,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확실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실직보험 자체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이를 강화된 재교육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첫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퇴직금 관련 규정보다 양질의 직업 훈련, 견습 기회, 그리고 일자리 매칭 플랫폼이 훨씬 더 절실하다. 관광, 외식, 물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문에서 정식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과 함께 노동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특정 계약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 개인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규 부문 채용과 청년 고용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추적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정책 시행 방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새 법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퇴직금 적립 기금을 포함한 하위 시행령은 이 법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한 해는 이러한 보호의 혜택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백만 명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김재훈의 세무상식

인도네시아 세금 체납액 납부 및 가산세 감면 절차 개정
PMK 71/2026 시행과 기업의 대응 방안



김 재 훈 대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재무부령 제71호(PMK No. 71 Tahun 2026)를 제정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규정은 기존 재무부령 PMK 118/2024에서 정한 세무상 정정(Pembetulan), 이의신청(Keberatan), 가산세 감면 및 면제(Pengurangan atau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tif), 과세처분의 감액 및 취소 절차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세금 납부액을 본세에 우선 충당하도록 변경하고, 가산세 감면 신청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세금 납부액의 본세 우선 충당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세금 납부액의 충당 순서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금과 가산세를 일부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이 본세와 가산세에 비례하여 배분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PMK 118/2024 제2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액은 본세에 우선 충당하고 본세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산세에 충당하도록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 본세 10억 루피아와 가산세 3억 루피아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하자.

기존 방식에서는 10억 루피아를 납부하더라도 본세와 가산세에 비례하여 충당되므로 본세 일부가 미납 상태로 남을 수 있었다. 반면 개정 규정에서는 납부액 10억 루피아 전액을 본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가산세 감면 신청 시 본세를 완납해야 하는 요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납세자는 본세를 우선 납부한 후 남아 있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본세 우선 충당은 가산세 감면 신청과 관련된 규정으로, 모든 세금 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가산세 감면 및 면제 대상의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는 제21A조를 신설하여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한 가산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대상은 세무결정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SKP)에 기재된 가산세, SKP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징수통지서(Surat Tagihan Pajak, STP)의 가산세, 기타 STP에 기재된 가산세 및 토지건물세(PBB) 관련 행정벌금 등이다.

그러나 모든 가산세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세기본법(KUP) 제25조 제9항, 제27조 제5d항 및 제5f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해당 감면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및 재심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 가산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먼저 가산세의 법적 근거와 부과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3. 가산세 감면 신청요건과 한시적 규정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본세가 완납되어야 하며, 신청 사유와 감면을 요청하는 금액을 명시한 인도네시아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SKP 또는 STP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다른 감액 · 취소 절차의 진행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27A조를 신설하여 국가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산세에 대해 국세청장이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이번 규정 시행일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제출되는 신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은 2028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하는 신청기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일정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신청한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가산세 감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 세무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세무 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도 일부 정비하였다.

먼저 제14조 제2항 h호에 따라 국세청은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조세조약이나 관련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상대국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관련 세무분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제16조 제5항에서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대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통지서(Surat Pemberitahuan Untuk Hadir)가 발송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기업은 세무당국의 통지서 수령 및 발송일을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한 증빙자료와 반박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5. 한국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

이번 개정은 세율이나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부 및 불복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과소납부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 기업은 본세 우선 납부와 가산세 감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무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본세와 가산세의 구분, 가산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 기존 이의신청 및 소송 진행 상황,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등이다.

아울러 가산세 감면 신청과 세무 불복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과세처분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PMK 71/2026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라기보다는, 본세 납부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감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과거 세무조사 결과와 미납세액 현황을 점검하고, 가산세 감면 신청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세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portlogics

GLOBAL FREIGHT FORWARDING · INTEGRATED LOGISTICS SERVICE

PORTLOGICS KOREA HQ · PORTLOGICS INDONESIA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 세계로,
포트로직스
Unlock your Business

수출입 포워딩, 인도네시아 전역의 B2B 기업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 물류의 전 과정을 IT 기술로 연결하는 디지털 포워더, 포트로직스는 한국 본사(Portlogics Co., Ltd. · 판교)와 APA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카르타 본사와 스마랑 지점을 거점 삼아 인도네시아 전역을 커버합니다.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연계 운송, 통관·내륙운송과 유통까지 전담 수행하며, BPJPH 할랄 인증(Sertifikat Halal)을 취득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e The Global No.1 Digital Forwarder

HALAL INDONESIA
HALAL CERTIFIED · BPJPH



수출입 포워딩
해상 · 항공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본사 ·
스마랑 지점
JAKARTA HQ · SEMARANG BRANCH

말레이시아 · 베트남 등
동남아 연계 수출입
SOUTHEAST ASIA CONNECTIVITY

할랄 인증 물류 서비스
BPJPH 인증 취득
HALAL-CERTIFIED DISTRIBUTION · BPJPH

KOREA · GLOBAL HQ
Portlogics Co., Ltd.
포트로직스(주)
Pangyo HQ · Busa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4,
JS타워 11-12층
JS Tower, 184 Pangyoyeok-ro, Seongnam, Korea
portlogics.com

INDONESIA
PT. Konesia Portlogics Indonesia
Jakarta HQ · Semarang
Menara Kadin, 4th & 5th Floors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2-3
Rasuna Said, South Jakarta, Indonesia
indonesia@portlogics.com

MALAYSIA · APAC HQ
Portlogics Global Malaysia SDN.BHD
Petaling Jaya HQ · Kota Kinabalu · Johor Bahru
Block A, A-7-02, Oasis Square,
2, Jalan PJU 1A/7, Ara Damansara,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enquiry.my@portlogics.com

VIETNAM
Konesia Portlogics Vina Co., LTD
Ho Chi Minh HQ · Hanoi
3rd Floor, Lutaco Building,
173A Nguyen Van Troi Street, Ward 11,
Phu Nhuan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vietnam@portlogics.com

portlogics NETWORK KOREA INDONESIA MALAYSIA VIETNAM JAPAN USA

© 2026 Portlogics Co., Ltd. · PT. Konesia Portlogics Indonesia

패션기업 75%, 원료 출처 입증에 '구멍' 있다

미국 수출 브랜드 21% 통관 보류 경험
원료 단계 추적 가능 기업은 20% 불과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패션기업 중 21%가 세관의 통관 보류를 경험했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75%는 원료 원산지를 요구받았을 때 이를 완전하게 입증할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 제조공장까지는 공급망을 파악하고 있지만 원사 · 섬유 · 원료 생산 단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정보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스웨덴 공급망 추적성 전문기업 트러스트레이스(TrusTrace)가 10월 발표한 보고서 '규제 집행의 시대: 숫자로 본 패션산업의 규제 대응 준비도(The Enforcement Era: Fashion's Compliance Readiness in Numbers)'는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세계 24개국의 지속가능성 · 규제 준수 · 공급망 담당 전문가 5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공급망 단계별 정보 격차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Tier 1)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응답은 75%였지만, 원사 · 섬유 생산 단계인 3차 협력사(Tier 3)에서는 33%, 면화 재배지 등 원료 생산 단계인 4차 협력사(Tier 4)에서는 20%로 떨어졌다. 직접 거래하는 봉제공장의 정보는 상당 부분 확보했지만, 그 제품에 사용된 섬유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차와 4차 협력사 사이의 데이터 확보율 격차는 55%포인트에 달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패션기업 75%가 원료 출처 입증에 허점을 드러내며 ESG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기업은 필요할 경우 공급망의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통관 보류가 곧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원료 생산 이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기업은 실제 위반 여부와 별개로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러한 위험이 확인됐다.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응답 기업의 21%가 CBP의 통관 보류를 경험했으며, 아직 보류 경험이 없는 기업 가운데 58%는 가까운 시일 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험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응답 기업의 48%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재 기업 목록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규제 준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은 21%에 그쳤고, 17%는 여전히 이메일과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규제 강화도 공급망 추적성 확보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EU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섬유 · 의류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DPP는 제품에 QR코드 등의 데이터 매체를 연결해 소재 구성, 제품 특성, 수선 · 재사용 · 재활용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산지와 관련 사업자 정보 등도 향후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섬유제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정보 항목과 의무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위임법령의 채택을 2027년 4분기로 계획하고 있다.

기업들의 준비 수준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 트러스트레이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9%가 DPP 도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자체 평가한 공급망 데이터 정확도의 중앙값은 5점 만점에 3점에 불과했다.

디지털 정보 제공 체계 구축에는 관심이 높지만, 정작 입력할 데이터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DPP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원료 · 가공 · 유통 단계의 기초 정보가 부정확하면 규제 대응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U의 강제노동 제품 규정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판매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정 자체가 모든 기업에 별도의 의무적 감사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은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지 · 한복에 K-뷰티 접목… 전주서 패션 · 뷰티 협업 무대

미국 수출 브랜드 21% 통관 보류 경험
원료 단계 추적 가능 기업은 20% 불과
전주한지패션대전 · 첫 K-뷰티뮤즈 선발대회 개최



한지와 한복에 헤어 · 메이크업을 접목해 전통패션과 K-뷰티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졌다.

지난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2026 전주한지패션대전'과 '제1회 K-뷰티뮤즈 선발대회'가 함께 열렸다. 전주패션협회(회장 이지영)가 전주비전대학교 K뷰티융합학과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디자이너의 작품 발표에 시민 참여형 한복 런웨이를 더해 전통문화의 접점을 넓혔다.

행사는 K-뷰티뮤즈 선발대회와 주리화 한복 갈라쇼, 전주한지국제패션쇼, 제22회 전주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 작품 패션쇼, 시상식으로 구성됐다.

'천년의 언어'를 주제로 한 경진대회 작품 패션쇼에서는 한지를 80% 이상 사용한 수상작과 올해 신설된 '한지 헤드피스 & 헤어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의상에서 머리 장식과 헤어아트로 한지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며 소재의 표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패션 부문 대상은 '지층의 잔상'을 출품한 군장대학교 안정현 학생이 차지했다. 헤드피스 &헤어아트 부문에서는 전주비전대학교 K뷰티융합학과 양은서 학생이 '한지 위에 피어난 밤'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제패션쇼에는 5개국 작가 16명이 참여해 '화문(花紋), 사계의 색'을 주제로 한지 특유의 질감과 투광성을 살린 디자인을 발표했다.

처음 열린 K-뷰티뮤즈 선발대회에는 고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다. 워킹 자세 · 시선, 포즈 · 턴 · 표정, 한복 맵시, 헤어 · 메이크업 등 4개 항목을 각 10점씩 평가해 의상과 뷰티 연출, 모델 표현력의 조화를 심사했다.

대상은 심사위원 5인 전원으로부터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한지민 씨에게 돌아갔다. 금상인 한복런웨이상은 김남희 씨, 은상인 K-뷰티상은 은정현 씨, 동상인 비전상은 강혜영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지영 전주패션협회장 겸 전주비전대학교 K뷰티융합학과장은 "K-뷰티뮤즈 선발대회를 매년 전주한지패션대전과 함께 열어 전주를 'K-한지 · K-한복 · K-뷰티'의 도시로 알리는 대표 문화행사로 키워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美 의류 · 신발 관세…소비자 부담 확대
뉴욕 전체 관세부담 150억달러…가구당 평균 1856달러
의류 90% 가까이 수입 의존…브랜드 · 유통업체 가격 인상 압박



미국의 관세 강화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류 · 신발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의류 · 신발은 일부 주에서 관세 부담이 가장 큰 품목군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비용이 브랜드와 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미납세자연맹재단(NTUF)에 따르면 뉴욕이 작년 1월 이후 부담한 전체 관세액은 약 150억달러로, 가구당 평균 1856달러로 추산됐다.

뉴욕과 콜로라도, 델라웨어 등에서는 의류 · 신발이 관세 부담이 큰 품목군으로 조사됐으며, 미국 패션시장의 높은 해외 생산 의존도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의류 · 신발이 관세에 민감한 이유는 생산 구조에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의류 · 패션제품의 약 90%가 해외 생산에 의존하며, 주요 브랜드들은 중국과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생산국에서 제품을 대규모로 조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 관세가 오르면 브랜드의 원가 부담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생산기지와 판매시장이 서로 떨어져 있는 패션산업 특성상 관세 변화가 수입 단계에서 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의류는 추가 관세 도입 이전부터 품목별로 최혜국(MFN) 관세를 부담해왔다. 여기에 국가별 · 품목별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서 일부 제품의 실제 수입 비용은 더욱 높아졌다.

늘어난 비용은 브랜드와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주요 패션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공급업체와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일부 제품에서는 판매가격을 올려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 부담이 장기화할수록 기업이 비용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세 강화로 브랜드들이 발주 지역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단 · 원부자재 공급망과 생산능력, 품질, 납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단기간에 생산국을 바꾸기는 어렵다.

미국 의류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관세 정책 변화가 브랜드의 원가와 판매가격, 글로벌 소싱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국제섬유신문

불소 없이 발수 · 발유 섬유가공 기술 개발
독일 공동연구진, 불소계 가공제 대체 기술 제시
면직물 시험서 세탁 · 건조 5회 후에도 성능 유지



불소계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섬유에 발수 · 발유 기능을 부여하는 가공기술이 개발됐다.

독일 작센섬유연구소(STFI)와 라이프니츠 고분자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새로운 가공제를 개발하고, 처리한 면직물에서 세탁 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기존 불소계 가공제는 보호복과 아웃도어 의류에 발수 · 발유 · 방오 기능을 부여하는 데 쓰여왔다. 그러나 일부 물질이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체 기술이 요구돼왔다. 특히 무불소 가공은 발수 기능에 비해 발유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POSS와 TRIS 계열 화합물을 다른 고분자 원료와 결합해 물 기반의 가공액을 만들었다. 섬유에 가공제가 잘 붙도록 돕는 물질을 먼저 처리한 뒤 가공액을 입히고, 열건조와 가교 공정을 거쳐 기능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시험에서는 가공한 면직물을 60℃에서 세탁하고 70℃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5회 반복했다. 물방울이 원단 표면과 이루는 각도인 '접촉각'은 세탁 전 최대 129도에서 세탁 후 최대 112도로 나타나, 세탁 후에도 발수 성능이 유지됐다.

발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에틸렌글리콜의 접촉각도 세탁 전 최대 123도에서 세탁 후 최대 106도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해당 시험액에 대한 결과로, 다양한 종류의 기름에 대한 발유 성능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번 기술은 불소계 가공제를 대체하려는 스포츠 · 의료 · 보호복 · 자동차용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연구진은 환경으로 유입되는 잔류성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상용화 일정과 생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출처 : 국제섬유신문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7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中 · 방글라 · 베트남, 세계 섬유수출 44% 차지
방글라 14위→2위 · 베트남 21위→3위…中은 1위 유지
니트 · 우븐 의류가 전체 60%…美 수입 비중 13.7%로 하락

세계 섬유 · 의류 교역에서 중국과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가 발간한 '더 텍스타일스 옵서버(The Textiles Observer)' 2026년 8월호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섬유 수출액은 9140억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 · 방글라데시 · 베트남 3개국이 약 44%를 차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출국 순위다. 2006년 세계 14위였던 방글라데시는 2025년 2위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21위였던 베트남은 3위까지 상승했다. 중국은 1위를 유지했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의류 생산기지는 중국 중심에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로 재편됐다.



교역 규모도 크게 늘었다. 세계 섬유 수출액은 2006년 약 5600억달러에서 2025년 9140억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니트 · 우븐 의류 수출액은 5468억달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니트 의류가 2891억달러, 우븐 의류가 2577억달러였다. 니트 의류 수출액은 2006년 1452억달러에서 거의 두 배로 늘었으며, 니트와 우븐 의류를 합친 수출액은 같은 기간 3037억달러에서 5468억달러로 약 80% 증가했다.

반면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졌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섬유 · 의류 수입국이지만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8.9%에서 2025년 13.7%로 5.2%포인트 하락했다.

ICAC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글로벌 수요가 다극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상품 수출입 금액 기준으로 소매 매출이나 패션산업 전체 시장 규모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별 국가의 수출 통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8월 총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14% 증가했으며 기성복(RMG)과 품목 다변화가 동시에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베트남 역시 2026년 1~7월 섬유 · 의류 수출액이 270억달러를 넘어섰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은 세계적인 의류 수출국인 동시에 원사와 원단의 주요 수입국이다. 두 국가의 의류 생산 확대가 이어질 경우 원사 · 원단 수입 수요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세계 수입시장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의류 공급망은 생산뿐 아니라 소비시장에서도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시장 다변화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국제섬유신문

KYUNGWON Air Compressor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KYUNGWON
We hereby certify that
PT YUSUNG JAYA ABADI
is authorised to sell & service KYUNGWON Compressors & Aftermarket products.
Date: 21 May 2026
Authorised Distributor Certificate
Younsu Cho
General Manager
Kyungwon Machinery Co., Ltd.
KYUNGWON MACHINERY CO.,LTD.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Atlas Copco Group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YUSUNG
PT YUSUNG JAYA ABADI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

PT YUSUNG JAYA ABADI | Head Office / Bitung Tangerang | Workshop / Tiga Raksa Tangerang | Branch Office / Cikarang & Jepara